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 배치한다

경찰청 한국형 대화경찰제 도입
시위대·경찰 소통창구 역할
갈등 중재로 불필요한 마찰 방지

경찰청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 ‘대화경찰’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정보·경비경찰로 구성된 대화경찰관을 배치하는 ‘한국형 대화경찰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스웨덴에서 벤치마킹한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회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맡게 된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스웨덴은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표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물리적 진압보다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제에서는 정보와 소

속 대화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경비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며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경찰 측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화경찰관은 인권, 대화 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구성된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대화경찰을 표시하는 조끼를 착용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갈등을 중재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시점부터 대화경

찰관 운영을 안내해 제도를 설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대화경찰관과 함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문제제기가 있을 때 현장 조치를 맡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이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주회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해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형점포·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연말부터 못쓰다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 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제과점은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세탁소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제도다.

/김용희 기자 kimyh@



빙상장 스케이트 타고 폭염 탈출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영주빙상장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구속부상자회 비대위, 양희승 회장 사퇴 촉구

황령·장학금 착취 의혹 ‘내분’
회장 “불신임안 가결은 거짓”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희승 회장이 지난달 21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을 받고도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양희승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5·18 기념·자유공원 내 매점과 자동판

매기를 운영하며 번 돈을 총회나 이사회에 재정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고 착복·횡령했다”며 “매년 회원 자녀(대학생·중고교생)에게 지급되는 인제 육성 장학금도 집행부가 12년간 절반 가량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서 회원 자녀 장학금 착복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양 회장을 황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회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임시총회에는 회원 275명이 참석했으나 몇몇 비대위원의 폭언과 먹살잡이로 회원 간 몸싸

움이 벌어져 투표를 못 하고 폐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대위가 주장하는 불신임안 가결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당시 녹화된 영상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6년 출범한 5·18구속부상자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등지로 불참허가 고역을 치른 항쟁 피해자들로 구성됐다. 양 회장은 2008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회장직에 선출,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달ตก	22:45
해질	19:35	달짐	10:21

광프리카

열사병 등 온열질환 관리 유의하세요

광주	맑음	26/37	보성	맑음	24/35
목포	맑음	27/35	순천	맑음	26/35
여수	맑음	26/34	영광	맑음	25/36
나주	맑음	24/37	진도	맑음	26/34
완도	맑음	26/35	전주	맑음	26/38
구례	맑음	24/37	군산	맑음	25/36
강진	맑음	25/35	남원	맑음	24/37
해남	맑음	25/35	흑산도	맑음	26/32
장성	맑음	24/3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남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남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서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물때

	간조		만조	
	시간	파고(m)	시간	파고(m)
목포	10:41	0.5~1.0	05:27	1.5~2.5
	22:49	1.5~2.5	17:42	0.5~1.0
여수	06:05	0.5~1.0	12:14	1.5~2.5
	18:06	1.5~2.5	--:--	--:--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	☀	☀	☀	☀	☀	☀
26/37	26/37	26/37	26/36	26/36	26/35	26/35

생후 60개월~초등학생 325만명도 독감 무료접종

오는 10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국가로부터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받는다.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관리 강화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생후 6~59개월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독감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 기반을 넓히고자 이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60개월~12세) 약 325만명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나이가 중·고등학교

생에게도 단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에는 중학생(146만명), 2020년에는 고등학생(182만명)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초등학교에 더해 중학교까지 입학 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와 파상풍 등도 무료접종을 해 줄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1사단 ‘취업희망버스’ 운영 장병 취업지원

육군 제31보병사단이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전역 후 고민 1순위로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지원에 나섰다.
31사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후원으로 ‘청년장병 진로 및 취업도움 사업’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장병 진로 및 취업도움 사업은 진로교육, 1대1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면접 및 취업 코치 등으로 구성됐다.

31사단은 광주·전남 곳곳에 있는 장병들에게 진로교육·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희망버스’를 운영하고, 일선 부대에 직접 찾아가 취업도움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취업 전문상담관을 사단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군산 文化財 夜行

GUNSAN CULTURE NIGHT

여름밤 군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08.11[SAT] ~ 08.12[SUN]

18:00-23:00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2018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숙

야식

야설

야시

주최 군산시 지원 문화재청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예술과 063)454-3273 www.culture-nightgunsan.kr